

광주시·전남도 “탄핵 후 민생 살리기·안전관리 총력”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공공배달업 특별할인 등 추진
연말 축제·행사 정상 진행...공공기관 소비촉진 캠페인
광주 구청장협의회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 최선” 다짐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역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탄핵소추안 가결 환영 성명’을 내고, 탄핵 여파로 침체한 민생 경제 살리기와 연말연시 안전관리 등에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5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긴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탄핵안 가결에 따라 시민 생활 및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안정 대책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휴일임에도 간부들을 긴급 소집했다.

강 시장은 이날 최우선 과제로 민생안정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혼란한 시기일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민생”이라며 “집회 과정에서 고생한 시민들, 내수 부진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 수출 부진·환율 급등으로 고달픈 기업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12월 송년 특수가 사라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업 활성화를 위한 연말 특별할인, 소비진작 이벤트,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추경 예산 확보 전략 마련 및 내년도 정부 추경에도 미리 대비하고, 연말 연시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대책 등도 지시했다.

강 시장은 “12·3 계엄이 남긴 교훈을 반영한 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새로운 헌법 전문에는 5·18 정신이 담기게 될 것”이라며 “특히 행정이 광주의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지를 되묻고, 다시 살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들고 일어났던 광주 시민들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우리는 더욱 굳건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5개 지역 구청장이 참여한 협의회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얼어붙은 민생 현상이 되살아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예정된 각종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긴급 민생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도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계,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안정시책을 신속히 발굴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공무원과 유관기관에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기를 위해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의 분위기를 만들 것”도 당부했다.

또 통합대국립의대, 전남특별자치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SOC 확충 등 도정 역점 현안에 대해서도 애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
광주시는 14일 시청 시민홀에서 ‘제2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과 함께 ‘제1회 어린이 안전골든벨 왕중왕전’을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광역단체장 평가...김영록 전남지사 7개월만에 1위 복귀

리얼미터 조사...긍정 61.3%

목포·순천대 통합, 공항 중재 호평

민선 8기 출범 이후 22개월 간 1위를 지켜왔던 전남 국립 의대 문제로 순위가 하락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7개월만에 다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1위에 복귀했다.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하기보다 지역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성과를 냈다는 점을 지역민들이 인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 지사의 현안 해결 능력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가 높아 다시 높은 지지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올해 11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긍정이 61.3%로, 전월보다 3.6%p 하락하며, 2위인

김동연 경기지사(60.0%)를 1.3%p차로 제쳤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전남 의대 설립과 관련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의 반발이 계속 이어진 데다 광주군공항 이전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긍정 평가가 9% 이상 급락, 전월 1위에서 3위로 밀렸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 지사는 줄곧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높은 긍정평가를 받아 22개월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전남 국립 의대 추진 대학 규모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이번에야말로 전남에 국립 의대를 설치할 절호의 기회”라며 과감히 결정하고 공직사회를 이끌었다.

김 지사는 이후 공모 추진 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이지만 현실화되기 어려웠던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이끌어냈다. 이어 통합 의대 설립을 정부에 제안해 그 어느 때보다 전남에 국립 의대가

설립될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평가다. 또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 역시 광주와 무안 사이를 오가며 중재에 나서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각각 해야 할 역할들을 강조해 더불어만 주장, 정부 등이 문제 해결에 뛰어 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월보다 3.4%p 떨어지긴 했지만, 44.5%로 10위권 내인 8위를 기록했다. 강 시장은 특히 도시권인 전국 특·광역시 단체장 중에선 지난 10월 2위에 이어 이번에는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리얼미터의 2024년 11월 월간 정례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시도별 10월~11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취약계층 ‘햇하계’ 지원한다

난방용품·고독사 예방 촛침 복지

광주시가 겨울철 한파 피해가 없도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에 집중한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부터 집중 발굴·지원한다.

단점·단수·단가스 또는 요금체납 이력 등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독거노인·장애인·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긴급복지 제도와 연계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생계유지비(71만3000원), 주거비(39만8000원), 연료비(15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등이다.

시는 또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 잠자리와 난방용품을 제공하며, 거리 노숙인 현장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 보호 체계를 운영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지기 250여명은 고립·단절 이웃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살핀다. 시는 한국전력공사·해양에너지와의 협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 징후를 상시 감시하는 등 겨울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도 선제 대응한다.

겨울철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단체, 차상위 계층 등 348세대에 50만~80만 원의 난방비도 차등 지원한다.

특히 경로당 1389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 간 매월 40만원씩 총 288만원을 지원한다. 한파 대비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900여명의 생활지원사를 투입하고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안부 전화, 방문 확인, 난방 점검 등을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서구 발산공원 생태숲 재탄생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 선정

2027년까지 60억 들여 복원사업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던 광주 서구 발산공원이 생태숲으로 재탄생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광주시는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발산근린공원’이 최종 선정, 국비 42억원을 포함해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발산공원은 1967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50년 이상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다. 이 때문에 발산공원 부지 대부분은 녹지 훼손과 경작, 쓰레기 투기 등으로 토양 오염이 심각하고 경관도 열악해 ‘도심 속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산공원 복원사업 부지는 전체면적 10만7047㎡ 중 이미 공원으로 조성한 곳을 제외한 9만4661㎡다.

광주시는 발산공원을 단순한 녹지공간 조성을 넘어 도시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복원하고, 시민에

게 쾌적한 녹지환경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2027년까지 복원 사업을 진행한다. 훼손지와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해 생태 학습 및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이번 발산생태축 복원사업이 도시생태계 복원의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광주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